

# 老年期에서의 性役割 正體感과 生活滿足度와의 關係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ersons.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教授 金 允 玄

梨花女子大學校 家庭管理學科

博士過程 俞 恩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Tae Hyun Kim.**

*Dept. of Home Administration, Ehw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Eun Hee Yoo.**

## <目 次>

I. 緒 論

II. 文獻研究

III. 研究方法

IV. 結果 및 論議

V.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elderly persons describe their own sex role-identity. Secondary purpose is to find out whether their sex role-identity i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which life circumstances, if any, are associated with sex role identity.

230 elderly persons who were older than 60 years living in Seoul were interviewed with measures including the Bem Sex Role Inventory Short Form, Life Satisfaction, and current life situation. For data analysis, X<sup>2</sup>-test, t-test, ANOVA and Scheffe test were us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most elderly persons described androgynous sex role-identity.
- (2) sex role-identity differentiated significantly life satisfaction.
- (3) Perceived sex role identity was related to the severall dimension of life situation scuh as marital status, health condition, activity.

## I. 緒 論

최근의 性役割 研究에서 두가지 變化가 일어났다. 첫째, 男性性和 女性性を 兩極的인 것으로 다

루었던 종래의 性役割研究에서 부터 벗어나 한 사람의 人性안에 男性性和 女性性이 모두 發達하여 統合되어져 있는 兩性性的의 概念이 提示되었다(Bem, 1975). 兩性的인 사람은 그들의 行動을 性役割 固定觀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各 狀況에 가

장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것의 의해 女性的으로 또는 男性的으로 行動을 取할 수 있다 한다.

둘째, 傳統的으로 發達心理는 幼兒期, 兒童期, 青年期에서 일어나는 變化에 着점을 두고 研究하였다. 그러나 全生涯發達心理는 成人期 또한 生活의 狀況이 계속 바뀌어져감으로써 變化가 持續되는 時期이고, 性役割은 生活週期の 段階에 따라 變化되어질 수 있다고 提示하였다(Atchley, 1975; Emmerich, 1973; Neugarten & Datan, 1973). Riegel(1973)은 性役割을 生物學的 要因, 社會的 壓力, 歷史的 背景의 諸要因이 複合的으로 機能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諸要因들은 끊임없이 變化한다고 하였다. Hefner와 그의 동료들(1975)에 의하면 全生涯동안에 사람들은 未分化된 性役割에서 兩極화된 役割로 그리고 性を 초월하여 男性的 女性的 役割을 統合시키는 段階로 發達되어간다고 하였으며 Garnet와 Pleck(1979)은 統合되어지는 段階조차 넘어서 性役割의 特徵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狀態로 發達되어져 간다고 하였다(Sinott, 1982: 재인용). 人性和 社會心理學的 發達로, 최근의 研究에서 性格特徵은 生의 초반기에 形成되어져서 時間이 지나고 狀況이 變하여도, 變化되지 않는다는 假說이 否定되고 있으며, 成人期の 性役割概念과 態度는 生活狀況의 變化와 직접적으로 聯關되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Abrahams, Feldman, Nash, 1978).

한편 새로운 性役割 特性으로서 兩特性이 提示되자 이에 關한 많은 研究이 이루어졌으며 兩性的인 사람이 性類型화된 사람들보다 더 精神的으로 健康하다는 結果들이 報告되었다(Bem, 1974; Spence Helmreich, 1978; Berzins, Welling, Wetter, 1973). 반면에 精神的 適應과 支配的인 相關關係를 갖고 있는 것은 女性性이나 兩性性보다는 男性性이라는 結果도 報告되고 있어 一致된 結果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Ryan, Glass, 1983). 그러나 以上の 研究들이 주로 美國社會의 大學生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競爭, 獨立心, 指導力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強調되고 要求되는 社會的 生活의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본 것처럼 性役割이 全生涯에 걸쳐 變

化, 發達되어질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제까지의 性役割 研究는 兒童期·青年期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老年期の 研究는 미약한 상태이다. 더구나 老年期는 子女가 成長해서 떠나가고 社會經濟的 活動에서 은퇴함으로써 男·女 모두에게 役割의 變化가 要求되며 男女의 性役割의 差異는 크게 減少되어지는 등, 다른 어떤 生의 段階와도 그 生活狀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本 論文에서는 첫째, 이제까지의 性役割 研究對象과 生活狀況이 다른 老人들에게 있어서 性役割 正體感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役割의 轉移가 要求되고 있는 老年期에서 性役割 正體感은 傳統的인 性役割 分離教育을 받은 韓國 老人의 生活滿足과 어떠한 關係를 갖고 있는가?

셋째, 性役割 正體感을 區分짓게 하는 생활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生活滿足은 精神健康과 關聯되어 있고 자주 精神健康的 指標로서 使用되어지고 있으므로 生活滿足을 性役割의 特性이 反映되는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 II. 文獻 研究

性役割 發達は 全生涯의 過程으로서 持續的으로 變化한다(Urberg & Labouvie-vief, 1976). 成人期는 生活의 狀況이 계속 바뀌어져 나감으로써 變化가 持續된다. 生活이 새로운 狀況으로 바뀔 때마다 이루어져야 될 課業이 다르며, 새로운 課業 遂行에 必要하고 새로운 狀況에 適切한 行動의 變化가 要求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要求는 關聯된 人性分野의 屬性과 態度를 變化시킴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生活經驗들은 傳統的으로 分類되어진 男性的 行動 또는 女性的 行動을 어느程度 要求하고 있는냐는 면에서 그것들의·特徵이 分類되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돌보거나 다른 사람과의 친교關係를 맺는 때에는 애정, 부드러움, 및 타인에 대한 關心 등이 要求되고 이런 屬性들은 女性的인 것으로 認識되고 있음이 普遍的이다. 逆으로, 學業成就나 事業의 成功에는 競爭心, 攻擊性, 自身感동의 要素가 要求되며 이들은 男性的인 屬性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므로 個人

이 處해 있는 生活狀況이 女性性 또는 男性性을 어느程度 要求하느냐에 따라서 男性性 또는 女性性的 屬性이 自我에 歸屬되어지는 程度도 달라진다.

Abrahams와 그의 同僚들이(1978), 子女가 없는 同居集團, 結婚初期의 集團, 妊娠中の 集團 그리고 父母集團등의 4集團間에 性役割 特徵을 比較해 본 結果 父母集團에서 男女間的 女性性, 男性性 點數의 差異가 가장 컸다. 즉 男子는 男性性的 點數가 女子는 女性性的 點數가 그 어느 集團보다도 가장 높았다 父母가 됨으로써 男便은 家族을 經濟的으로 돌봐주어야 하는 手段的 役割에 더욱 參與해야 함이 要求되고, 婦人은 子女養育에 全念하게 됨으로써 男性에게서는 男性성이 女性에게는 女性성이 強調되어진 結果임을 提示하였다. 傳統的인 性役割을 가장 엄격히 區分지어서 行動하는 時期는 父母노릇에 積極的으로 參與해 있는 中·長年期이며 老年期에 들어가면서 男女의 性役割의 差異는 점차 사라져 가게 된다. 父母가 됨으로써 男便은 그들의 手段的 役割遂行에 妨害가 되는 依存的 欲求를 단념하고, 대신에 아내와 子女와의 同一化를 통해 해소해 나간다. 한편 情緒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婦人은 男便과의 分離를 助長할 수 있고, 많은 保護가 필요한 子女 養育에 해를 줄 수도 있는 攻撃性을 단념해야 한다. 그러나 子女 養育期가 끝나고 老年期에 들어서면 그동안 억눌렀던 女性性(男便), 男性性(婦人)을 表出시킴으로써 unisex한 生活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老年期에 와서 男女모두가 보다 兩性的인 사람이 되어진 다기 보다는 男性은 女性化, 女性은 男性化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變化는 子女養育(父母노릇)을 하는 일련의 行動이 끝났음으로써 이루어진다(Gutmann, 1975, 1977, 1978).

Sinnott(1977)는 老年期에서의 性役割 類型的 變化를 人性的 再組織과 行動의 變化라는 면에서 변증법적으로 說明하고 있다. 老人들의 生物學的 欲求面에서, 男女 役割의 差異는 거의 없다. 그러나 文化的으로는 男女의 役割이 分離되어 있다(傳統的 性役割 規範이 느리게 變하고 있는 社會에서). 老人들의 生物學的 欲求와 狀況의 期待를 統合하기 위해서는 傳統的인 性役割의 再組織이 要求되

며 이는 兩性的인 性役割로 歸結되어질 수 있다.

이에 關한 經驗的 研究에서 대부분의 老人이 兩性的인 것으로 반응했으며, 男性性 點數, 女性性 點數에서 男女의 差異는 거의 없었다. Neugarten(1968)은 老人들이(55~70세) 中年期(40~59세)의 成人들 보다 더 受容的이었음을 執告하였다. 특히 女性들은 女性的 支配性 表出에, 男性들은 男性的 情緒的 欲求의 表出에 보다 더 受容的인 態度를 보였다.

性役割의 統合은 成熟한 사람의 根本的인 發達 作業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Bem, 1975; Jung, 1933). 初期 兒童期에는 性役割의 概念이 未分化된 狀態로 있다가(第1段階),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兩極化된 性役割 概念을 習得하는 第2段階로 들어간다. 第2段階에서는 性役割 固定觀念에 맞추어 行動하는 것이 成人社會에 들어가는 必要한 過程으로 생각하며, 傳統的인 男性的, 女性的 役割을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가 부여해주는 대로 순응하여 行動한다. 그리고 社會는 性役割 固定觀念에 따라 行動하는 것을 理想的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思考와 意思決定이 象徴的이며 假說的인 되는 認知段階에 이르면, 性役割 固定觀念에 一致되느냐 아니냐에 執着하는 것이 아니라, 狀況에 따라서 自由롭고도 適切히 行動을 취한다(第3段階). 第2段階에서 學習되어졌던 性役割의 可能性들을 第3段階에서는 性を 초월하여 再組織하는 것이다. 보다 成熟한 段階에 이룰수록 性役割의 固定觀念的인 意識과 行動은 完화되어 진다(Kohlberg, 1969, 1973).

최근의 研究에서 統合된 性役割을 갖고 있는 사람이 性類型화된 사람보다 適應을 잘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Bem, 1975; Sinnott, 1977; La France & Carmen, 1980). Kagan과 Kohlberg에 의하면 性役割 社會化 過程에 의해 形成된 性役割 規範에 一致하는 方向으로 行動하도록 動機를 받는다 고 한다. 性類型화된 사람은 자신의 男性 또는 女性的 自我概念에 一致하도록 하기 위해서 非女性的 行爲를 배제한다. 그러나 兩性型은 固定觀念에 상관없이 狀況에 反應하도록 보다 多樣한 資源을 使用하게 됨으로써 융통성있게 適應을 해나간다(Bem, 1975). 즉 男性은 男性的인 男性, 女性的

인 女性에게서 心理的 適應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主張하나 男女 모두에게서 男性型 또는 兩性型이 보다 適應力이 많음이 報告됨을 볼 때 (Jones, et al, 1978; Bassoff, 1984) 이런 見解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性役割 類型과 精神健康과의 關係에 있어서 生活週期는 重要한 變數이다. 男性성이 높은 男性들이 青年期에서는 心理的 適應과 積極的인 關係를 보였으나(Mussen, 1961), 成人期에는 不安, 神經症勢, 낮은 自己受容도와 關係를 맺고 있었다(Harford, Wills, Deabler, 1967; Mussen, 1962). 老年期에는 兩性的인 老人이 精神健康의 點數가 가장 높았으며, 女性성보다는 男性성이 精神適應과 보다 積極的인 關係가 있었다(Sinnott, 1982). 女性성이 높은 女子老人들은 生活의 不適應을 보였으며, 自己批判의 性向이 높았고(Lowenthal et al 1975), 家庭中心的인 傾向이 매우 높은 女性이 老年期에서는 보다 問題의 소지가 많음을 發見하였다(Mass & Kuypers, 1974). 性役割 類型이 生活週期에 맞추어 變化할 수 있다는 能力을 보여주는 것은 융통성의 指標로서 볼 수 있으며 이는 成功的인 老後生活과 關聯되어진다. 老年期의 生活滿足은 文化的으로 定義된 女性的인 役割과 男性的인 役割을 統合하는 것과 一致될 수 있다(Sinnott, 1977).

以上の 先行研究들을 綜合해 볼 때 男性的인 役割과 女性的인 役割이 뒤섞여 있고, 子女의 出家, 隱退등으로 인해 役割의 變化가 要求되고 있는 老年期에서는 兩性的인 것이 老年期의 生活滿足과 積極的인 關係가 있을 것이라 본다.

### Ⅲ. 研究 方法

#### 1. 研究對象

本 研究는 서울市에 居住하고 있는 60세이상의 老人 23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研究對象 老人의 年齡은 60~69세가 57.0%, 70세이상인 43.0%였다. 生活水準은 대부분이 中流(72.6%)이며, 教育에서는 無學에서 大卒에 이르기까지 高루 分布되어 있으며, 老人을 對象으로 하는 다른 研究에서 처럼 女性(60.9%)이 男性(39.1%)보다 많았고,

結婚狀態에서는 結婚關係가 持續되고 있는 老人들(50.9%)이 配偶者의 死亡, 別居, 離婚등에 의해 獨身狀態로 있는 老人들(49.1%)보다 약간 많았다. 家族形態는 아들 夫婦와의 同居形態가 많았고(55.3%), 老夫婦家族이 그다음으로 많았다(19.3%). 平均 家族數는 4.03名이다.

#### 2. 研究道具

本 研究에서 使用된 測定道具는 性役割 正體感을 測定하기 위한 Bem Sex Role Inventory (BSRI)와 生活滿足度를 測定하기 위한 金兌玄의 生活滿足測定道具를 使用하였다.

##### 1) Bem Sex Role Inventory.

BSRI는 社會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典型的인 男性的 特性과 女性的 特性을 근거로 하여서, 男性성과 女性성을 測定하는 問項, 채점을 하지 않는 中性問項이 자기 20개씩 들어있다. BSRI는 7점 Likert 式 尺度로 各項目이 자신의 性格과 얼마나 一致되는나의 程度에 따라서 '결코 나의 性格과 같지 않다'가 1점,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나의 성격과 같다'가 7점을 받는다. 男性성의 尺度와 女性성의 尺度는 서로 獨立的이기 때문에 男性성인 사람이 同時에 女性성일 수도 있다. BSRI의 채점방법은 중앙치 半分법(median-split method)을 채택하였다. 中央值 半分法은 男性성 尺度와 女性성 尺度의 中央值를 기점으로 해서 男性성 女性성 點數가 모두 中央值보다 높으면 兩性的인 集團에, 男性성 點數는 中央值 以上인데 女性성 點數는 中央值 以下이면 男性的인 集團에, 男性성 點數가 中央值 以下이고 女性성 點數가 中央值 以上이면 女性的인 集團에, 男性성, 女性성 點數가 모두 中央值 以下이면 未分化 集團에 해당하였다.

최근에 BSRI를 要因分析에 의해 研究한 結果 男性성 尺度와 女性성 尺度에서 社會적으로 바람직한 程度가 비교적 낮거나, 또는 다른 問項과 반복되는 것들을 削除하여서 內的 一致도와 女性성과 男性성의 直交성을 擴大시킨 Short Form BSRI를 만들었다. Short Form BSRI는 원래의 BSRI의 절반으로 男性성 尺度, 女性성 尺度의 問項이 자기 10개씩 있으며 中性問項도 10개이다.

本 研究에서는 Short Form BSRI 를 使用하였고 이 尺度의 信賴度는 要因分析을 利用한 많은 研究 結果 妥當度가 입증되었다.

2) 生活滿足度の 測定道具

生活滿足을 測定하는 道具로 가장 널리 使用되고 있는 生活滿足度 指標(LSIA)는 Neugarten 과 그의 동료에 의해 처음으로 開發되었다. 그들은 生の 滿足을 5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즉 Eest versus Apathy(일상적으로 무엇을 하던지 간에 自身이 하는 活動에 滿足을 하는 것), Resolution and Fortitude(自身の 人生을 意味있는 것으로 여겨 지나온 人生을 뜻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Congruence(自身이 바라던 主要 目的들을 成就하는데 成功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Self-Concept(自身에 대해서 肯定的인 自我象을 갖는 것), 그리고 moodtone(행복하고 樂觀的인 態度的 感情을 갖는 것)等이다. 이렇게 LSIA 의 構造를 評價해온 研究를 보면 LSIA 가 複合的인 次元임을 알 수 있지만 밝혀진 次元들 사이의 關係에 對해 理論的으로 說明하려는 試圖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限界點을 克服하기 위하여 Jöreskog 와 Sörbom 은 LSIA 의 構造를 보여 줄 수 있는 模型을 提示하였으며, 여기서는 Zest, Moodtone, Congruence 의 3가지 要因이 使用되었다. 本 研究에 使用된 生活滿足度 測定道具는 內의 一致度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世계의 細部尺度로 構成되어 있다. 즉, 感情狀態, 삶에 대한 情熱이나 關心 및 期待와 實際와의 一致度등 17개 項目으로 構成되었다. 各 項目은 3점 尺度로 構成되어, 肯定的 問項은 ‘그렇다’에 3점, ‘보통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定否의 問項은 ‘그렇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3점을 주었다. 滿足度の 程度는 17개 項目의 점수의 合으로 測定하였고, 合의 점수가 높을수록 生活滿足度는 높다.

3. 研究 節次 및 分析方法

本 資料 蒐集에 使用된 Short Form BSRI 는 정옥분(1986)에 의해 번안된 것이다. 그러나 예비 검사 과정에서 7점 尺度로 詳細히 區分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要求인 것으로 判斷되어서 本 調査에서는 5점 尺度로 修正하였다. 또한 老人들이

長時間(1시간 30분~2시간) 面談에 應함으로써 오는 피로로 인해 오히려 不正確한 反應을 해주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本 調査에서는 中性 問項을 削除하였다. 번안된 문항중 老人들의 理解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몇몇 問項에 대해서는 약간의 修正을 加하였다. 使用된 BSRI 는 男性性 尺度의 信賴計數가 .833, 女性性 尺度의 信賴計數는 .894였다. 本 研究는 韓國의 老人層이 BSRI 에 應答한 最初의 試圖로서 아직 妥當度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BSRI 는 性役割의 特徵을 探求할 수 있도록 비교적 設計가 잘 된 測定道具이며 이미 다른 成人, 靑年, 兒童등을 相對로 한 研究에서 妥當度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를 採擇하였다.

生活滿足度 尺度는 金兌玄(1985)에 의해 制作된 尺度를 使用하였다. 이 尺度는 1985年 9月 8日~9月 16日 期間동안 60세이상 老人 50名을 對象으로 한 pilot study 를 거쳐 同年 10月 4日~10月 30日 에 걸쳐 230名의 老人을 個個人 面談하여 수집한 資料로 信賴度를 算出하였다(α 계수 : .8718).

本 調査는 研究者 및 關聯過程의 碩士過程 學生들이 面談法에 의해 1987年 4月 11日~4月 22日사이에 實施되었다.

本 資料의 分析은 變量分析法에 의해 性役割 正體感에 따른 生活滿足度の 差異를 分析해 보았고, 性役割 正體感에 따라 生活滿足도가 有意的인 差異가 있는 경우, 事後檢證으로서 Scheffe 의 方法을 使用하였다. 또한 兩性性이 나온 集團은 어떤 생활 환경에 속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 人口統計的 變數別로 性役割 正體感 集團間의 分布의 差異를  $X^2$  檢證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韓國 老人의 性役割 正體感

韓國 老人의 性役割 正體感 分布는 <표 1>에서 처럼 兩性型이(29.6%)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未分化型(27.4%), 男性型(22.6%), 女性型(20.4%)의 順으로 나왔다. 이를 다시 性別로 分離해 보았을 때 男性 老人에게서는 兩性型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男性型은 28.9%, 未分化型은 16.7%, 女性型은 15.5%로 나타났다. 女性 老

인에게서도 未分化型이 34.3%로 가장 많았고, 兩性型和 女性型이 23.6%로 同比率을 보였으며, 男性型이 18.6%로 가장 적었다. 性役割 正體感和 性別과는  $X^2$ 檢證 結果 有意的인 關係가 있었다 ( $X^2=14,858, p<.01$ ).

全體的으로 男性性和 女性性이 비슷하게 發達되어 있는 兩性型和 未分化型을 합해 보면 57.0%로 性類型화된 老人들보다 더 많다. 이는 傳統的인 性役割 分離教育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는 韓國 老人들에게서도 先行研究와 一致되는 結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性役割 正體感의 分布

단위 : 名(%)

變因	兩性型	男性型	女性型	未分化型
男	35(38.9)	26(28.9)	14(15.5)	15(16.7)
女	33(23.6)	26(18.6)	33(23.5)	48(34.3)
計	68(29.6)	52(22.6)	47(20.4)	63(27.4)

## 2. 性役割 正體感和 生活滿足度

최근의 研究에서 兩性性 내지는 男性性이 生活에 보다 더 잘 適應하는 것으로 提示되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生活에 適應한 結果로 表現되어질 수 있는 生活滿足도와 性役割 正體感과의 關係를 分析하였다.

〈표 2〉에서 보면 兩性型的 生活滿足도가 가장 높았으며 ( $M=2.25$ ), 男性型, 女性型, 未分化型的 順으로 滿足도가 점차 낮아졌고, 이 結果는 兩性型이 生活適應에 바람직한 類型이라는 先行研究들과 一致하였다(Bem, 1975 Sinnott, 1982).

〈표 2〉 性役割 正體感에 따른 生活滿足度

變 因	生 活 滿 足 度			
	N	SUM	Mean	STD
兩 性 型	68.0	152.88	2.25	0.37
男 性 型	52.0	109.71	2.11	0.36
女 性 型	47.0	98.47	2.10	0.39
未 分 化 型	63.0	122.12	1.94	0.35
計	230.0	483.18	2.10	0.38

〈표 3〉 性役割 正體感에 따른 生活滿足도의 變異 分析

Source	DF	SS	MS	F	P
性役割正體感	3	3.147	1.049	7.84	0.001
Error	226	30.220	0.134		
Total	229	33.367			

〈표 3〉에서 처럼 性役割 正體感의 4 집단간에 生活滿足도는 有意的인 差異가 있었다 ( $F=7.84, p<.001$ ).

그러나 性役割 正體感和 生活滿足度間의 有意的인 關係를 Scheffe 方法에 의해 事後檢定한 結果 兩性型 集團과 未分化型 集團에서만 有意水準 5%에서 有意的인 差異가 있었으며, 兩性型, 女性型, 男性型的 3集團들 사이의 어떤 集團間의 比較에서도 有意的인 差異는 없었다 ( $\alpha=.05, DF=226, MSE=.134$ ).

〈표 4〉는 性과 傳統的인 性役割 正體感과의 一致與否와 生活滿足도와 의 關係를 본 것이다. 한편 傳統的인 性役割 分離教育을 받아들인 韓國 老人들에게서는 그들의 性役割 正體感이 自身의 性과 不一致였을 때 느낄 수 있는 갈등은 老人의 生活滿足에 否定的인 影響을 주리라 期待할 수 있다. 性과 性役割 正體感이 一致 또는 不一致되는 것이 生活滿足도에 影響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 男性性이 높고 女性性이 낮은 男性과, 女性性이 높고 男性性이 낮은 女性을 한 集團으로 構成하고, 男性性이 높고 女性性이 낮은 女性和 女性性이 높고 男性性이 낮은 男性을 다른 한 集團으로 하여 두 集團間의 生活滿足도를 비교해 보았다. 두 集團間의 生活滿足도의 平均을 t檢定한 結果 有意的인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性役割 正體感이 女性型이나 男性型이나 間에 따라서 生活滿足도에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고, 性役割 正體感이 性과 一致하느냐 아니냐가 生活滿足도에 有意的인 差異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老年期의 生活特徵을 反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女性的 役割이나 男性的 役割이 뚜렷이 分離되어 있기 보다는 男女의 役割 分離가 모호한 상태이므로 男性性 또는 女性性 그 어느 것이 뚜렷이 더 發達해 있는냐는 生活滿足에 決定的인 差異를 가져오지 못하고 단지 男性性和 女性

〈표 4〉 性과 性役割 正體感一致, 不一致別로 本 生活滿足度

集 團	N	Mean	S D	T	P
一致集團	59	2.044	0.355	1.20	0.42
不一致集團	171	2.120	0.389		

〈표 5〉 教育和 性役割 正體感別로 本 生活 滿足度の 二元變量分析

Source	D F	S S	F
教育水準(A)	3	5.74	17.24**
性 役 割(B)	3	8.40	25.22**
A×B	9	2.65	2.66**
Error	310	34.40	
Total	325	51.19	

\*\* : p < .01

〈표 6〉 經濟水準과 性役割 正體感別로 本 生活滿足度の 二元變量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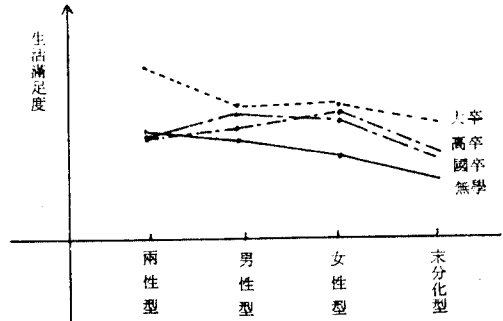
Source	D F	S S	F
經濟水準(A)	2	6.25	28.28**
性 役 割(B)	3	8.40	25.34**
A×B	6	1.88	2.83**
Error	314	34.67	
Total	32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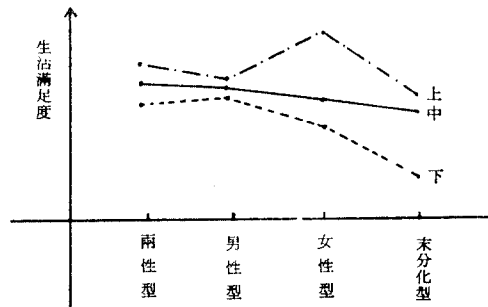
性이 고루 發達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滿足度가 크고 두 가지가 모두 낮은 경우에 가장 否定的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生活滿足도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中에는 性役割 正體感의에도 性別, 社會經濟的 地位도 영향을 줄 수 있다(Larson, 1978; Atchley, 1977; Liang 1982; 김중숙, 1987; 김태현; 1981).

本 論文에서는 性役割 正體感を 教育和 生活水準의 社會經濟的 地位要因에 따라서 어떤 相互作用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 教育水準×性役割(표 5)와 經濟水準×性役割(표 6)로 二元變量分析을 해 보았다. 〈표 5〉와 〈표 6〉에서 처럼 教育水準×性役割 正體感의 相互作用과 ( $F=2.26, p<.01$ ), 經濟水準×性役割 正體感의 相互作用은 ( $F=2.83, p$



〈도 1〉 教育水準×性役割 正體感의 相互作用



〈도 2〉 性役割 正體感×經濟水準의 相互作用

<.01) 有意的이었다. 이들의 相互作用을 graph로 그려본 結果 〈도 1〉, 〈도 2〉에서 처럼 教育水準은 大卒集團에서 性役割 正體感에 따른 生活滿足度の 變化가 가장 컸고 生活水準에서는 中流層에서 가장 差異가 없었다.

以上的 結果를 볼 때 性役割 正體感이 生活滿足도에 미치는 영향은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性役割 正體感과 生活環境

本 研究의 세번째 問題는 어떤 環境의 特性이 性役割 正體感和 關聯이 있는가?가 探索되었다.

〈표 7〉은 性役割 正體感和 有意的으로 關聯있는 것으로 나타난 環境의 變數를 要約해 놓은 것이

〈표 7〉 性役割 正體感과 生活環境

變 因	단위 : %			
	兩性型	男性型	女性型	未分化型
性 別				
男 性	51.5	50.0	29.8	23.8
女 性	48.5	50.0	70.2	76.2
活動與否				
活動함	82.3	63.5	70.2	58.7
活動 안함	17.7	36.5	29.8	41.3
健康狀態				
매우 좋다	36.8	25.0	34.1	9.5
보통이다	44.1	50.0	40.4	55.6
건강하지 못하다	19.1	25.0	25.5	34.9
結婚狀態				
結婚關係中	64.7	57.7	51.1	30.2
離婚, 別居	4.4	5.8	6.4	19.0
死 別	30.9	36.5	42.5	50.8

다. 兩性型인 老人은 結婚關係를 持續하고 있는 傾向이 많았으며 未分化型은 配偶者가 死亡했거나 離婚, 別居등의 이유로 結婚하지 않은 狀態에 있는 老人이 많았다. 그러나 男性型和 女性型間에는 커다란 差異가 없었다( $X^2(3)=21.31, p<.01$ ). 團體에 參與하여 活動하는 율에서는 兩性型이 가장 높았고( $X^2(3)=9.57, p<.05$ ), 健康狀態에서는 '매우 좋다'의 兩性型的 分布가 가장 높았다( $X^2(6)=15.51, p<.05$ ).

全般的으로 兩性型은 團體 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健康狀態가 좋으며, 結婚關係를 持續하고 있었다. 分析되었으나 有意的으로 나타나지 않은 變數들은 年齡, 教育水準, 經濟水準, 家族形態, 宗教, 收入有無 등이었다.

## V. 結論 및 提言

韓國 老人들의 性役割 正體感은 어떠한가? 라는 研究問題에서, 一般的으로 兩性型的 老人이 가장 많았다. 傳統的인 性類型화된 老人들 보다 男性性和 女性性이 비슷하게 발달되어 있는 老人들이 더 많았다. 이는 研究對象들이 1900년대 初期에 태어나서 性役割 分離教育을 받았던 하더라도 性役割 轉移는 老年期에 와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發達

的인 傾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Guttman의 理論과 一致한다 하겠다. 그러나 性役割 正體感의 分布를 性別로 보았을 때, 男性에서는 兩性型이 가장 많았으나 女性에서는 未分化型이 가장 많았다. 傳統的인 韓國 家族價值觀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對象者들에게서 女性들의 男尊女卑思想이 內面化됨으로 인해, 老年期에 와서 女性들에게 女性性을 要求하는 生活狀況은 減少되었다 하더라도 男性性을 發達시킬 수 있는 機會 및 動機를 충분히 利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 程度이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詳細히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性役割 正體感과 生活滿足度 關係에서 兩性型은 役割이 흐려지는 老年期 生活에서는 보다 만족스러운 生活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假說이 部分的으로 支持되었다. 그러나 性役割正體感和 性的 不一致 여부는 生活滿足에 有意的인 影響을 주지 못하였고 단지 男性性和 女性性 두가지 속성 모두 不足한 未分化型에서 生活滿足은 커다란 差異를 보였다.

性役割 正體感和 經濟水準, 教育水準의, 相互作用에서는 性別과는 相互作用效果가 없었으며, 經濟水準×性役割 正體感, 教育水準×性役割에서만 相互作用 效果가 있었다. 教育水準이 높고(大卒以上), 經濟水準이 높은 集團에서 性役割 正體感에 따른 生活滿足도의 差異는 크게 나타났다.

性役割 正體感和 環境의 特性間의 關係에서는 結婚狀態, 健康 및 活動性등의 要因이 有意的으로 性役割 正體感의 集團을 區分했다. 이는 老年期에서의 性役割 特徵은 發達の일 뿐 아니라 環境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要因이 性役割 特性을 갖게 하는가의 因果關係를 밝힐 수는 없다. 단지, 男女 모두에게서 男性的 役割과 女性的 役割이 비슷하게 要求되는 老年期 生活에서 老人들은 男性性和 女性性을 均衡있게 發達, 利用하는 것이 老年期 生活을 成功的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

本 研究 結果를 통해서 앞으로의 研究에 提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韓國文化에 맞는 性役割 正體感의 標準화된 道具가 必要하다. 둘째, 性役割의 特徵을 보다 正確히 測定하기 위해서는 性役割 正體感, 性役割에 대한 價值觀 및 行動의 3가지



次元에서 함께 調査가 이루어져야 겠다. 세계, 性役割과 生活満足의 關係를 보다 說明力 있게 研究하기 위해서는 社會學的 接近이 家族關係學的 接近과 함께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兌玄(1986), “老年期の 生活満足度 研究 —發達課業 成就度와의 相關研究—, 誠信研究論文集, 第23輯.

정옥분(1986), “韓·美 兩國大學生의 性役割 正體感과 自尊心에 관한 比較文化研究, 「大韓家政學會誌」 제24권 2호.

Abrahams, B., Feldman, S., Nash, S.C.(1978), Sex Role Self-Concept and Sex Role Attitude Endur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r Adaptations to Change Life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No. 4.

Adams, D., “Analysis of a Life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Gerontology*, 24, 1969.

Bassoff, E.S. (1984), Relationships of Sex-role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Bem'S.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1, No. 4.

Bem, S. (1981) Bem Sex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MC, 577 College Ave., Palo Alto, CA, 94 306.

Hefner, R: Rebecca, M. Oleshansky B. (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Hoyt, D.R: J.C. Creech (1983),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methological and Theoretical Critique, *Journal of Gerontology*.

Jöreskog, K.G: Sörbom, D., “LISREL IV-Esti-

mation of Linear Structural Equation System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s,” *International Educational Serrices*, Chicago, 1978.

Liang, J. (1982), Sex Differnce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7, No. 1.

Liang, J. (1984), Dimensions of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A structural Form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39, No. 5.

Locksley, A., Colten, M.E. (1979), Psychological Androgyny: A Case of Mistaken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No. 6.

Mc Gee, J., Wells K. (1982), Gender typing and Androgyny in later life, New Direction for theory and research, *Human Development*, 25.

Neugarten, B.L: Gutmann, D (1968), Age-Sex Roles and Personality in middle age, A thematic apperception study: in Neugarten, *middle age and a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Sinnott, J. D. (1982), Correlates of Sex Roles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Vol. 37, No. 5.

Spence, J. T., Helmreich, R.L. (1979), “The many faces of Androgyny, A Reply to Locksley and Colt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No. 6.

Urberg, K.A., Labowvie-vief, G. (1976), Conceptualizations of Sex Roles; A Life Span Development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2, No. 1.

Worell, J. (1978), Sex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pective on Me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6, No. 4.